

주간 통일정세

2018-14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관련 주요 동향		특이사항 없음.
남북 교류협력	3.31.	예술단·태권도시범단 평양 도착...北 “반갑고 기대 크다”(연합뉴스)
	4.2	한반도에 찾아올 봄을 노래하다...평양공연 北열광·김정은 관람(연합뉴스)
		태권도로 하나 된 남과 북...평양서 첫 합동시범(연합뉴스)
	4.3.	함께 부른 통일노래...평양 남북합동공연 ‘감동의 무대’(연합뉴스)
	4.4.	예술단 평양공연 마치고 귀환...윤상 “민기지 않을만큼 감동”(연합뉴스)
		예술단 환송만찬...현송월 피아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 특이사항 없음.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3. 31.

■ 예술단·태권도시범단 평양 도착·北 “반갑고 기대 크다”(연합뉴스)

- 북한에서 두 차례 공연할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31일 평양에 도착함.
- 이들을 태운 이스타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김포공항을 떠나 서해 직항로로 오전 11시 7분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 오전 11시 30분께 평양국제공항에 착륙함.
- 공항에는 북한 박춘남 문화상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등이 마중 나와 이들을 맞았으며, 박 문화상 등은 공항 귀빈실에서 방북단을 이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상 예술단 음악감독과 잠시 환담함.

2018. 4. 2.

■ 한반도에 찾아올 봄을 노래하다·평양공연 北열광 김정은 관람(연합뉴스)

- 10년 이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가 1일 평양 대동강지구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림.
- 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측 정부 요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은 2층 객석 중앙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음.
- 공연은 이날 오후 갑자기 결정된 김 위원장 참석으로 예정보다 1시간여 늦은 우리시간으로 오후 6시 50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까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가왕 조용필, 최진희, 강산에,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정인, 알리, 서현, 김광민, 그리고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11팀(명)의 가수들은 3층으로 이뤄진 1천500석의 공연장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남과 북, 세대를 뛰어넘는 26곡의 노래를 선사함.

■ 태권도로 하나 된 남과 북...평양서 첫 합동시범(연합뉴스)

- 남측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측 조선태권도위원회 시범단의 공연이 2일 오후 평양대극장 1천 200여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열림.
- 최취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일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장 등 북측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관람했으며, 우리측에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출 태권도시범단 총괄단장이 참석함.
- 시범공연은 남측 25분, 북측 30분, 남북 합동 5분 등 총 60분 동안 진행되었음.

2018. 4. 3.

■ 함께 부른 통일노래...평양 남북합동공연 '감동의 무대'(연합뉴스)

- 우리 예술단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함께 만든 '남북예술인들의 연합무대-우리는 하나'가 3일 평양 보통강구역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렸음.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주요 인사들이 대거 공연을 관람했으며, 남측에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함.
- 1만 2천여 석의 공연장을 가득 북측 관객들 앞에서 펼쳐진 공연은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여 이어진 뒤 긴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림.
- 공연 후반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정인, 알리, 서현, 레드벨벳과 북측 여가수들이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한라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라는 가사가 담긴 북측 노래 '백두와 한나(한라)는 내 조국'을 부르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이어 남북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피날레 송으로 '우리의 소원', '다시 만남 시대'를 부를 때 도종환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 남북 요인들이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하고 관객 1만 2천여 명이 일제히 기립박수로 호응하는 감동의 무대가 연출되었음.

2018. 4. 4.

■ 예술단 평양공연 마치고 귀환…윤상 “믿기지 않을만큼 감동”(연합뉴스)

-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끈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은 4일 오전 2시 52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발, 오전 3시 4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함.
- 1시간 뒤 도 장관과 ‘가왕’ 조용필, 최진희, 강산에, 이선희, YB, 백지영, 정인, 알리, 서현, 걸그룹 레드벨벳, 피아니스트 김광민 등은 다소 지쳤지만 밝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서 기념촬영을 함.
- 윤 감독은 “다들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할 것”이라며 “제 생각도 그렇다”고 벽찬 소감을 전하며 “무사히 모든 일정을 끝내고 온 것에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아티스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

■ 예술단 환송만찬…현송월 피아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연합뉴스)

-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주재한 우리 예술단의 환송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짐.
- 4일 복수의 방북 예술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만찬장에서 우리 가수들과 삼지연 관현악단 가수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합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전선부 초대소인 미산각에서 열린 이날 만찬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당초 예상된 2시간보다 1시간가량 더 길게 이어짐.
- 만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가수 4명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르자 이번 공연에서 이 노래를 록 버전으로 편곡해 부른 윤도현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며 “현송월 단장이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두 번 불렀는데, 같이 해달라는 제안에 그중 한번은 조용필 씨가 나서기도 했다”고 말함.
- 또 다른 관계자는 “만찬 말미에 현 단장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자 탁 행정관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선곡했다”며 “현 단장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가수들이 마이크를 돌려 부르다가 나중에는 모두 함께 노래했다”고 전함.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3.31.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조선외무성대표단 출발(조선중앙통신)
	4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삼지연군건설정형 현지료혜(조선중앙통신)
		스위스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조선중앙통신)
	43.	체육상이 남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다(조선중앙통신) 北통신 리용호 외무상 출발 보도...“러시아-CIS국가 방문”(연합뉴스)
	44.	김영철 예술단 만찬 주제...“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연합뉴스)
	45.	조선정부대표단 바꾸 도착(조선중앙통신)
46.	北, 유럽·러·비동맹 외교전...리용호 “남북 뭉치면 통일 열려”(연합뉴스)	
군사	45.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인근서는 주요 공사 움직임”(연합뉴스)
경제	3.31.	北축구대표팀 감독 “경제 상황 나빠 더 머무를 수 없다”(연합뉴스)
		“대북제재로 송금 막혀 유엔긴급구호자금지원 12년만에 중단”(연합뉴스)
사회 문화	42.	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연합뉴스)
	44.	北, ‘조선말 배우기’ 관광상품까지 출시(연합뉴스)
45.	“北, 비사회주의적 요소 단속 강화...엄벌 포고문도 붙여”(연합뉴스)	
	北도 여성인력 활용 관심...‘일·가정 양립’ 필요성 거론도(연합뉴스)	
외교 국방	3.31.	日외무상 “北, 새 핵실험 준비 움직임...북일대화 안달 안해”(연합뉴스)
		IOC 위원장 “北, 도쿄·베이징 올림픽 참가 약속...김정은 면담(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 블랙리스트 49개 추가...“역대 최대”(연합뉴스)
	42.	北 도쿄올림픽 참가의향에...日 “납치문제 우리 마음 알아야”(연합뉴스)
	43.	‘밀착’ 北中 외교장관회담...왕이 “한반도비핵화 평화구축 노력”(연합뉴스)
		北TV, ‘김일성-中지도자 교류’ 기록영화 4년 반만에 방영(연합뉴스)
45.	北신문, 김일성·저우언라이 ‘우애’ 조명...선대친선 잇단 강조(연합뉴스) 러시아 “리용호 北외무상 9~11일 방러...10일 러-북 외무회담”(연합뉴스)	

	덴 코츠 美 국가정보국장 “러시아, 北김정은 위원장 방러 초청”(연합뉴스)
	“스위스, 선박15척 등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46.	“영국, 선박 15척 등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일자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3.31.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접견	최룡해, 최휘, 김일국	-
4.2	남한 예술단 공연관람	리설주, 김여정, 김영남, 최휘, 리선권, 박춘남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3. 31.

■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했으며,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일국 체육상 겸 조선올림픽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뿐아니라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하여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언급했다고 전함.
- 이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울철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덧붙임.

2018. 4. 2.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휘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박춘남 문화상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이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전함.

-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면서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 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3. 31.

■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조선외무성대표단 출발(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3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2018. 4. 2.

■ 박봉주동지 삼지연군건설정형 현지료해(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박봉주 내각총리가 “삼지연군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박봉주동지는 삼지연못가역과 삼지연청년역을 비롯하여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고 전함.
- 이어서 “협의회에서는 지휘관들이 공정별계획에 따르는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고 덧붙였다.

■ 스위스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중혁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38차총회에 참가하고 2일 귀국하였다”고 보도함.

2018. 4. 3.

■ 체육상이 남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예술단 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담화에서는 체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이 협의되었다”고 덧붙임.

■ 남측예술단을 위한 환송연회 진행(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평양에서의 예술공연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친 남측예술단을 위한 환송연회가 3일에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예술단 성원들이 초대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관계부문 일군들,삼지연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는 동포애의 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함.

2018. 4.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뿔력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고 로씨야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로동신문)

- 로동신문은 4일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되는 뿔력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고 로씨야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이어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와 알렉산드르미나예브 주조로씨야련방 립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고 덧붙임.

2018. 4. 5.

■ 조선정부대표단 바꾸 도착(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되는 뿔력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바꾸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4. 6.

■ 北, 유럽·러 비동맹 외교전…리용호 “남북 뭉치면 통일 열려”(연합뉴스)

- 리용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히며, 비동맹국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함.
- 리 외무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최대의 전쟁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반도에 쏠리던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지지와 환영의 박수갈채로 변했다”면서 “이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북남관계(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강조함.
- 리 외무상은 각료회의 중 따로 이람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하고, 또 이란과 쿠바 등 우방 외교장관과도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9일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다음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북한의 김선경 유럽담당국장은 4일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해 외교 담당 고위 관리와 잇달아 회담하고, 이날은 EU 의장국 불가리아로 이동해 아시아 담당 국장을 만났음.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4. 5.

■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인근서는 주요 공사 움직임”(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 단지 내 5MW(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냉각수 배출구 인근에서 주요(major)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함.
- 38노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5MW의 원자로 가동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냉각수 배출구가 있는 강둑을 따라 대규모 땅파기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는데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장소가 강 부근, 기존의 배출구 주변이라는 점에 미뤄볼 때 원자로에 필요한 부차적인 냉각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함.
- 또한 5MW 실험용 원자로 뒷편에 최소 3대의 트럭이 주차돼 있는데 이는 사용한 연료봉을 핵연료 저장고에서 방사화학 실험실로 옮기거나 원자로에 새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또는 시설 보수·유지에 동원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3. 31.

■ 北축구대표팀 감독 “경제 상황 나빠 더 머무를 수 없다”(연합뉴스)

- 북한 축구대표팀의 예른 안데르센(노르웨이) 감독은 31일 “나는 더 머무르고 싶지 않다”며 경제난을 이유로 북한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힘.
- 안데르센 감독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흥미있는 일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경험했다”며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더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함.
- 안데르센 감독의 결정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는 물론 스포츠에도 영향을 주는 현실을 그 배경으로 지목함.

2018. 4. 2.

■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연합뉴스)

- 북한의 계간지인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는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와 그 의의’ 제목의 개인 필명 논문을 통해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는 본질에 있어서 대부를 주는 기업체의 대부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대부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도와주고 나라의 귀중한 화폐 자금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2일 나타남.
- 논문은 “금융기관 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상업은행들에서 대부를 줄 때 대부받은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기초해 대부를 주는 제도와 질서,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힘.
- 논문은 “자본주의하에서 은행들의 기업체 지불능력평가는 철저히 영리적 목적에서 진행된다”며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상업은행들은 기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해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3. 31.

■“대북제재로 송금 막혀 유엔긴급구호자금지원 12년만에 중단”(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유엔이 올해 중앙긴급구호자금(CERF) 지원을 받는 13개국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북한은 2007년 1천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엔으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함.
- 유엔 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메일을 통해 “대북송금 길이 막혀 자금을 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익명을 요구한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대북 지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전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8. 4. 5.

■ “北, 비사회주의적 요소 단속 강화…엄벌 포고문도 붙여”(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문화와 자본주의적 경제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RFA가 인용한 아시아프레스의 전언에 따르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제목의 포고문이 북한 북부지방의 공공장소마다 붙었으며, 포고문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현상을 비롯해 복장과 머리 모양 등을 엄하게 단속하며, 북중 접경지역 불법 월경과 밀수, 마약판매, 휴대전화의 불법사용 등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
-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규찰대’로 불리는 단속반이 행인의 옷차림을 검사하면서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적발되면 가위로 잘라버릴 정도이고, 함경북도 청진시에선 월 5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고리대금업자가 붙잡히기도 했다고 RFA는 덧붙임.

라. 사회 동향

2018. 4. 4.

■ 北, ‘조선말 배우기’ 관광상품까지 출시(연합뉴스)

-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관광상품 광고 글에서 “조선국제여행사에서는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평양관광대학에서 조선말 배우기 관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힘.

- 이어 “이번 조선말 배우기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3강의씩 진행하게 된다”라며 “강의를 마친 후 손님(관광객)들은 평양과 개성, 남포, 묘향산을 비롯한 조선의 이름난 관광지와 명승지를 참관한다고 소개함.
- 그러면서 평양관광대학에 대해 “재능 있는 관광부문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유능한 대학 교원들의 강의와 함께 많은 외국인의 초빙 강의도 진행하여 관광 분야의 지식과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전함.

2018. 4. 5.

■ **북도 여성인력 활용 관심…‘일·가정 양립’ 필요성 거론도(연합뉴스)**

- 올해 1월 발간된 북한 경제학술지 ‘경제연구’ 2018년 제1호에 실린 ‘가정부인 노력(勞力·인적자원)과 그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노력, 그 가운데서도 가정부인(주부) 노력을 정확히 장악하고 효과 있게 이용하는 것은 나라의 긴장한 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함.
- 논문은 “오늘 여성노력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광범히 인입하는 것은 긴장한 노력 문제를 풀고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히면서 “가정을 가진 여성노력을 적극 동원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면 그들에게 가정을 돌보면서 사회적 본분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을 가지지 않은 여성노력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동, 인민반에 있는 가정부인 노력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들을 사회적 노동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북·중 관계

2018. 4. 3.

■ ‘밀착’ 北中 외교장관회담…왕이 “한반도비핵화 평화구축 노력”(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3일 베이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왕이 국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성공적인 방문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 북·중 관계 발전 및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추진에 대해 중대한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중 전통 우의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국 및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외교 부문은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최고 지도자의 베이징 회담 성과를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발언함.
- 리용호 외무상은 “북중은 양국 최고지도자의 베이징 회담이 가리킨 방향에 따라 한반도 유관 문제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할 것”이라고 화답함.

■ 北TV, ‘김일성-中지도자 교류’ 기록영화 4년 반만에 방영(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오후 7시 40분께부터 약 45분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중국의 모택동, 주은래, 덩소평 동지들과 진행하신 대외활동’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함.
- 영화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중국의 영도자들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어 조중(북중) 친선의 역사에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시었다”면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중 지도자들의 교류 역사를 되짚음.
- 중앙TV가 이 기록영화를 편성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 6일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친중파였던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을 2013년 12월 처형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 영화도 북한 TV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혈맹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북한 매체들도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음.

2018. 4. 5.

■ 北신문, 김일성·저우언라이 ‘우애’ 조명…선대친선 잇단 강조(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5일 ‘한없이 고결한 의리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령님(김일성)

- 계서와 주은래(저우언라이) 총리와의 혁명적 우애는 세계 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펼치었다”며 1975년 4월 김일성이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저우 전 총리를 베이징에서 병문안한 것을 언급함.
- 신문은 “수령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려 몰라보게 상한 주은래 총리를 보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시어 그를 부둥켜안으신 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며 “눈물겨운 상봉 앞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뜨거운 것을 삼키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함.
 - 신문은 “조중(북중) 친선은 두 나라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자주 내왕(왕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가장 친근한 동지적 관계와 숭고한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여 공고 발전되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거론함.

다. 북·일 관계

2018. 3. 31.

■ 日외무상 “北, 새 핵실험 준비 움직임…북일대화 안달 안해”(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31일 고치(高知)시에서 한 강연에서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실험장에서 터널로부터 흠을 밖으로 옮겨 다음 핵실험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제공한 위성화면을 토대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안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말하는 평론가가 있지만,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언급함.
- 그는 이날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가진 이유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자, 평양에 와 주세요’라고 말을 듣고 모두가 함께 (평양에) 가게 된다면 (북한에) 약점을 보이게 된다”고 발언함.

2018. 4. 2.

■ 北 도쿄올림픽 참가의향에…日 “남치문제 우리 마음 알아야”(연합뉴스)

- NHK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森喜朗)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 의사가 있다고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토마스 바흐 IOC 회장이 평창 올림픽에서 큰 노력을 해서 북한 선수의 참가를 추진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고 언급함.

- 이어서 그는 “일본인 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롭고 풍성한 상황을 맞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납치문제를 거론하면서 “납치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강제로 빼앗은 뒤 계속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한 일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나서 이야기(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냄.

라. 북·러 관계

2018. 4. 5.

■ 러시아 “리용호 北외무상 9~11일 방러...10일 러-북 외무회담”(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이튿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
-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11일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공식 방문이 예정돼 있다”면서 “10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하고, 이어서 “(회담에선) 양자 관계 현황 및 전망이 논의되고, 한반도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둔 핵심적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과 리 외무상의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확인함.

2018. 4. 5.

■ 덴 코츠 美 국가정보국장 “러시아, 北김정은 위원장 방러 초청”(연합뉴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덴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자 “현 단계에선 아직 모른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전함.
-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아직 어떤 러-북 정상회담 일정도 잡힌 게 없다. 그러한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정에 없다”면서 “(북러) 정상회담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3. 31.

■ IOC 위원장 “北, 도쿄·베이징 올림픽 참가 약속”…김정은 면담(연합뉴스)

- AP통신은 평양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서 30분 동안 공식 회담을 했으며 이에 앞서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함께 축구를 관람하면서 45분가량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함.
- 바흐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북한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 동지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김 체육상과 바흐 위원장 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유엔 안보리, 대북 블랙리스트 49개 추가…“역대 최대”(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對北)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선박·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대상은 모두 47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며, 이들은 북한의 석유, 석탄 해상 밀수를 도와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외신들은 전함.
- AFP통신은 “자산이 동결되고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은 총 25척으로, 북한 국적 13척과 다른 나라 국적 12척”이라며 “나머지 북한 국적 2척은 자산동결 조치만 부과된다”고 설명했으며, 선박·무역회사 21곳은 자산이 동결된다고 전함.

2018. 4. 5.

■ “스위스, 선박15척 등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 스위스가 북한과 관련된 불법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을 지난 3일(현지시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 27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따른 이행 조치임.
-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 대변인은 유엔제재 대상 27척 가운데 스위스에 해당 사항이 없는 12척을 제외한 15척만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힘.

2018. 4. 6.

■“영국, 선박 15척 등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영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불법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회사 21곳을 5일(현지시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과 개인, 회사 등 49건을 추가로 대북제재 목록에 올린 데 따른 이행 조치라고 RFA는 전함.
- RFA는 영국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자산동결조치 대상인 선박에는 천명1, 안산1, 유평5, 삼정1, 삼정2, 삼마2, 유정2, 백마, 지송6, 천마산, 남산8, 유선, 우리스타 등 15척이 포함됐다”며 “제재목록에 오른 기업은 북한 회사 12곳, 홍콩 회사 3곳, 중국 회사 2곳, 그리고 싱가포르, 사모아, 마셜군도, 파나마 회사가 각각 1곳”이라고 보도함.

Ⅲ 동북아정세

■ 개요

1. 한반도정세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1.	한미 軍, 독수리연습 돌입...美 강습상륙함 2척 동시진개(연합뉴스)	
	4.5.	한미 軍, 기상악화로 축소한 상륙훈련...브룩스 사령관 참관(연합뉴스) 한미 합참의장 전화통화...가나 피랍국민 구조 지원 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3.31.		中언론 '한반도 중국 역할론' 연일 강조...“김정은 방중 입증”(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3.	외교부 “日외무상 방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중”(연합뉴스)	
	4.4.		교도 “아베, 3월 통화때 文대통령에게 ‘남북회담前 방일’ 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4.1.	부산시 한국-중국-러시아 복합물류 항로 활성화 박차(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3.31.		왕이 중국무위원 美겨냥 “보호무역주의 쓴맛 보게 될 것”(연합뉴스)
			美中, 北 고립탈출 행보에도 ‘제재는 계속된다’ 확인(연합뉴스)
	4.3.		중외교부 “미중 무역전쟁 두렵지 않아…미국법에 따른 협상 안돼” (연합뉴스)
	4.4.	美中 무역전쟁 국지전서 전면전 확대…中, 미국산 콩 정조준(연합뉴스)	
	4.5.	미중 ‘무역전쟁’ 속 협상 탐색전?...양국 외교당국자 회동(연합뉴스)	中 남중국해서 해군훈련 개시...美 루즈벨트 항모 전단도 집결(연합뉴스)
4.6.			중국, 미국 보복관세 WTO 제소 절차 개시(연합뉴스)
		트럼프 또...“1천억달러 규모 중상품에 추가관세 고려 지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2		미일정상회담 17~18일 美서 개최...아베 “납치문제해결 전력”(연합뉴스)
	4.3.	미, F-35 스텔스기 전 기종 2021년 이후 일본에 모두 배치(연합뉴스)	
	4.5.		日언론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에 美 보상방안 검토”(연합뉴스)
		미-일-인도 고위급 실무 회의...‘인도-태평양 협력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1.		“미국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 60명 가족과 함께 본국 귀환”(연합뉴스)
	4.2	푸틴-트럼프 정상회담 ‘안갯속’...크렘린궁 “트럼프가 먼저 제안”(연합뉴스)	
	4.3.		러시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격 준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1.	중국-일본, 15일째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추진(연합뉴스)	
	4.2		日, 태평양 오기사와라에 이동식 레이더 배치...“中 견제”(연합뉴스)
	4.3.	中 해경국 선박, 日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44.	러시아, 중국에 최첨단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본격 인도(연합뉴스) 중국 국방부장 “러시아 방문은 미국에 대한 신호”(연합뉴스)	
	46.	방러 중국 외교부장 “한반도 평화위해 비핵화 노선 견지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4. 1.

■ 한미 軍, 독수리연습 돌입…美 강습상륙함 2척 동시전개(연합뉴스)

-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군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쌍룡훈련을 시작으로 독수리 연습을 한다”고 밝히며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을 포함한 독수리(FE) 연습을 시작함.
- 독수리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전개를 수반하는 야외 실 기동 연습(FTX)으로 한미 군은 이날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1만 1천500여명과 한국군 약 30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짐.
- 한미 군은 보통 3월 초에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늦췄고 훈련 기간도 4주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2018. 4. 5.

■ 한미 軍, 기상악화로 축소된 상륙훈련…브록스 사령관 참관(연합뉴스)

- 한미 양국군이 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기상악화로 규모를 크게 줄인 상륙작전 훈련을 했는데, 이번 훈련은 한미 군의 연례적인 쌍룡훈련에 속하며 이는 실기동 연습(FTX)인 독수리(FE) 연습의 일부로 쌍룡훈련을 함.
- 결정적 행동 훈련은 상륙함이 병력을 태운 공기부양정과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을 해상에 쏟아내고 이들이 육지로 돌격해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상륙작전의 하이라이트로 꼽히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기상악화로 이를 대부분 생략했음.
- 한미 군 지휘부는 이날 포항 앞바다 파고가 높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훈련을 강행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훈련은 해상에서 상륙작전을 위한 함정 기동과 통신 등을 위주로 진행됨.

■ **한미 합참의장 전화통화..가나 피랍국민 구조 지원 요청(연합뉴스)**

-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 3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 5일 미 합동참모본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 의장과 던퍼드 의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관해 논의하고 동맹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며, “두 사람은 쌍방의 안보 이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힘.
-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의장은 던퍼드 의장에게 최근 가나 인근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3명 구조에 필요한 미국 측의 정보 지원과 현지로 긴급 출동한 청해부대 작전 지원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던퍼드 의장은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전력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나. 한·중 관계

2018. 3. 31.

■ **中언론 ‘한반도 중국 역할론’ 연일 강조..“김정은 방중 입증”(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연일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함.
- 이는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구도로 한반도 정세 급변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는 ‘차이나 패싱’이 없으며 중국이 중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31일 중국 인민망 영문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수없이 촉구해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함.

다. 한·일 관계

2018. 4. 3.

■ **외교부 “日외무상 방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중”(연합뉴스)**

- 외교부는 3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이 내주 방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함.

-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라며 한일 양국이 고노 외무상의 방한 일정을 이달 9~13일 중 이틀간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함.

2018. 4. 4.

■ 교도 “아베, 3월 통화 때 文대통령에게 ‘남북회담前 방일’ 요청”(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5월초 도쿄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와 별도로 조기 방일을 요청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전에 시간을 내서 한일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통신은 해석함.
- 그러나 통신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계로 문 대통령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하였고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늦어도 5월말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문 대통령의 방일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라. 한·러 관계

2018. 4. 1.

■ 부산시 한국·중국 러시아 복합물류 항로 활성화 박차(연합뉴스)

- 부산시가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북방 복합물류 운송항로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힘.
- 이달 중으로 자루비노항~부산항 항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100개에서 150개를 선정해 컨테이너 당 20만 원의 운송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올해 말까지 이 항로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1개에 4만~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
-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련 기업 등과 함께 북방물류 개척단을 구성해 한·중·러 복합물류 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3. 31.

■ 왕이 中國국무위원, 美겨냥 “보호무역주의 쓴맛 보게 될 것”(연합뉴스)

-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6차 메콩 강 경제권(GMS)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을 겨냥해 보호 무역주의는 중국을 향하는 대문을 스스로 닫는 것으로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왕 국무위원은 “중국은 확고한 정책으로 변하지 않고 외부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 이익에 부합하고 각국도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계기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동서 화합의 전면적인 개방 구도를 조성하며 외국 기업에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함.
- 그러면서 그는 “개방은 쌍방향이어야 하며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개방하면 다른 나라도 중국에 개방하길 바란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견과 분쟁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며 관건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함.

■ 美中, 北 고립탈출 행보에도 ‘제재는 계속된다’ 확인(연합뉴스)

-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과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을 새롭게 제재리스트에 올린 것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관계개선 행보의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됨.
-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제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 등 61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안보리 15개국이 논의한 끝에 이뤄진 조치였음.
- 제재 대상 기업과 선박 등을 늘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 채택이 아니라, 기존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운영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음.

2018. 4. 3.

■ **中외교부 “미중 무역전쟁 두렵지 않아…미국법에 따른 협상 안돼”(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중 협상은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경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반응이며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만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우리는 결연히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2018. 4. 4.

■ **美中 무역전쟁 국지전서 전면전 확대…中, 미국산 콩 정조준(연합뉴스)**

- 미중 양국이 서로 치명타가 될 고율 관세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무역분쟁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양상임.
-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 적자의 원인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돌리며 강력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한 데 대해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물려서지 않고 곧바로 맞불 보복을 이어가고 있음.
-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조치에 이은 미국산 농축산물 128개 품목에의 맞불 보복관세, 그리고 미국의 중국산 1천300여 품목을 겨냥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에 관세 폭탄을 쏟아 부을 기세임.

2018. 4. 5.

■ **미중 ‘무역전쟁’ 속 협상 탐색전?…양국 외교당국자 회동(연합뉴스)**

- 미국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했는데, 이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벼랑 끝에 선 양측이 협상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탐색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국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설리번 부장관이 이날 추이 대사를 국무부에서

만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미중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설리번 부장관은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가 있는 양국 간, 역내, 그리고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국무부는 밝힘.

■ 中 남중국해서 해군훈련 개시...美 루즈벨트 항모 전단도 집결(연합뉴스)

-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전단이 5일부터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자 미국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 전단도 남중국해로 진입함.
- 5일 홍콩 성도(星島)일보에 따르면 미국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한 제9 항모강습단(CSG9)이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3일 출항해 현재 남중국해에 이미 도착함.
- 앞서 동아시아 권역에 배치돼 있던 칼빈슨함은 이미 일본 요코스카(横須賀)항을 떠나 미국 본토로 회항 중이며 루즈벨트함이 칼빈슨함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동아시아 해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2018. 4. 6.

■ 중국, 미국 보복관세 WTO 제소 절차 개시(연합뉴스)

-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하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됨.
-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되는데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제소의 시작으로 봄.
-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천 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하루 전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또...“1천억달러 규모 中상품에 추가관세 고려 지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천억 달러(약 106조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

했다고 밝힘.

-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함.

나. 미·일 관계

2018. 4. 2.

■미일정상회담 17~18일 美서 개최…아베 “납치문제해결 전력”(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당정협의)에서 오는 17~20일 미국 플로리다 주를 방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17~18일 이틀 간 정상회담을 한다고 2일 밝힘.
-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 “과거의 교훈을 돌아보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달라고 직접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달 초순 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일자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2018. 4. 3.

■미, F-35 스텔스기 전 기종 2021년 이후 일본에 모두 배치(연합뉴스)

-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2일 일본 주둔 미 해군 대변인을 인용, 미 해군이 오는 2021년 이후 F-35C기를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岩國) 해병 항공기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대변인은 남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될 F-35C기가 몇 대인지 밝히지 않은 채

- “미 해군은 최첨단 전투 성능을 지닌 F-35C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항공전력 강화와 함께 일본 방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이와쿠니 기지의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 소속 F-35B기(16대)와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된 공군 제34 전투비행단 소속 F-35A기(12대)를 포함해 오는 2021년 이후에 모든 F-35 기종을 일본에 배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

2018. 4. 5.

■ 日언론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에 美 보상방안 검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달 17~18일 플로리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도 시야에 두고 비핵화 프로세스 검토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함.
-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요미우리는 2003년부터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나눠 ‘보상’이 부여됐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2008년 말 6자회담이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재개가 ‘용인’됐다고 설명함.

■ 마일-인도 고위급 실무 회의…‘인도-태평양’ 협력 논의(연합뉴스)

- 5일 인도 외교부 등에 따르면 무누 마하와르 인도 외교부 미국 국장과 프라나이 베르마 동아시아 국장, 엘리스 웰스 미국 국무부 남·중아시아 수석 부차관보와 수전 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 스즈키 사토시(鈴木哲) 일본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등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9회 3국 국장·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함.
- 이들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기회로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가운데 평화롭고 포괄적으로 번영을 이루도록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지역의 연결성, 기반시설 개발 협력 증진, 핵확산 방지, 대테러, 해상 안보, 해양 공간 식별,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관한 실질적 조치를 논의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

다. 미·러 관계

2018. 4. 1.

■“미국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 60명 가족과 함께 본국 귀환”(연합뉴스)

- 러시아 이중스파이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한 러시아 배후 의혹과 관련 미국에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태운 2대의 특별기가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기도 사건과 관련 미국이 추방 명령을 내린 60명의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 등 171명을 태운 특별기들이 이날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내렸음.
- 이에 러시아도 동수의 미국 외교관을 맞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상호 추방한 외교관 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됨.

2018. 4. 2.

■푸틴-트럼프 정상회담 ‘안갯속’…크렘린궁 “트럼프가 먼저 제안”(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계속해 양국 외교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기도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이 외교 갈등 속으로 빠져들면서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 화근이 되고 있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자국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트럼프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제안이후 곧이어 러시아 외교관을 무더기 추방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함.

2018. 4. 3.

■러시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격 준비(연합뉴스)

- 러시아 당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렉세이 그루즈데브 경제개발부 차관이 2일(현지시간) 밝힘.
- 그루즈데브 차관은 이날 우랄 연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진행과정

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오면 관련 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함.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했는데, 러시아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관세조치로 러시아 업계의 피해는 최소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라. 중·일 관계

2018. 4. 1.

■ 중국·일본, 15일째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추진(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 투자 등 경제 과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이달 중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오는 1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시점을 축으로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함.
- 두 나라 사이 고위급 경제대화는 지난 2007년 12월 처음 열렸지만, 센카쿠(尖閣·중국 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양국 관계 악화로 2010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었고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리면 약 7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임.

2018. 4. 2.

■ 日, 태평양 오가사와라에 이동식 레이더 배치…“中 견제”(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도쿄(東京) 남쪽 태평양 상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전개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일 전함.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과거 오가사와라제도 등 태평양 도서지역에 고정식 레이더 등 경계 감시부대가 배치돼 있지 않다며 “항공 태세의 측면에서 공백 지역”이라고 거론한 바 있는데 이는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 군용기와 항공모함 등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방위성이 구체적 후보지를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방위력 정비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대장’ 등에 이동식 레이더의 전개 기반을 정비한다고 명기할 것으로

로 알려졌음.

2018. 4. 3.

■ 中 해경국 선박, 日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연합뉴스)

- 3일 오전 11시께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 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앞바다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진입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음.
-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이 일본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 선박에 대해 “즉각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격상시키고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에 나섰다.

마. 중·러 관계

2018. 4. 4.

■ 러시아, 중국에 최첨단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본격 인도(연합뉴스)

- 러시아가 저고도 순항 미사일은 물론이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함.
- 이타르타스 통신,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등 외신은 러시아가 1개 연대 분량의 S-400 ‘트리움프’(Triumf) 방공미사일 포대운영 장비를 처음으로 중국에 인도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함.
-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은 이 조치가 2014년 러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30억 달러(1조 1천600억 원) 규모의 S-400 판매계약에 일환으로 중국은 S-40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로 3개 포대(대대 규모) 분량을 도입하기로 함.

■ 중국 국방부장 “러시아 방문은 미국에 대한 신호”(연합뉴스)

- 중국의 웨이펑허(魏鳳和) 신임 국방부장은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러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하면서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의 신호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함.
- 웨이 부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보여주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알게 하려고 4일 러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안보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 4. 6.

■ **방리 중국 외교부장 “한반도 평화위해 비핵화 노선 견지해야”(연합뉴스)**

-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의 견고한 평화와 안보 실현을 위해선 비핵화 노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전날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왕 부장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전개와 관련해 깊이 있는 견해를 교환했으며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한반도 정세의 현저한 개선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 특히 남북한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이 있다고 전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4.3.	미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180일 이상 지연...역대 최장(미국의소리)
	4.4.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북 인권’ 반드시 다뤄야”(자유아시아방송)
		미 상원의원들 “북한, 정상국가 되려면 비핵화와 인권 개선 병행해야”(연합뉴스)
4.5.	미 전문가들 “북한 인권 논의의 핵심은 현장 접근과 조사”(미국의소리) 러, 북 노동자 대신 인도 노동자 활용 검토(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4.4.	北신문, 북한인권결의 환영 南에 “용납못할 망동” 비난(연합뉴스)
		북한, 국제인권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연합뉴스)
	4.5.	北도 여성인력 활용 관심...‘일·가정 양립’ 필요성 거론도(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4.4.	강경화 “정부, 北인권 확고한 기본입장...열악한 인권 개선도모”(연합뉴스)
	4.6.	통일부 “北 억류자, 남북관계 진전과정서 해결되도록 노력”(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3.31.	RFA “탈북민 16명 29일 중국서 체포돼”(자유아시아방송)
	4.2.	탈북민 취업 위한 기업체 단기연수 신설·창업지원 다변화(연합뉴스)
		탈북자 단체, 쌀·USB 담긴 페트병 500개 서해안 통해 북한으로 (미국의소리)
	4.3.	“북, 탈북자 가족 강제추방 중단”(자유아시아방송)
4.6.	탈북자 구조단체들 “지난해 11월 강제 복송된 모자 석방돼”(미국의소리)	
대북지원	3.31.	유엔, 대북 긴급기금 지원 중단...“제재로 송금 길 막혀”(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4. 3.

■미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180일 이상 지연…역대 최장(미국의소리)

-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대표는 북한인권법 연장 처리의 장기간 지연 문제는 법안 내용이 아니라 의회가 다른 사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상원 외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2018. 4. 4.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 인권’ 반드시 다뤄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촉구했음.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글에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약 3주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의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회담은 북한 정권이 반 인도적 범죄를 계속해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의원들 “북한, 정상국가 되려면 비핵화와 인권 개선 병행해야”(연합뉴스)

-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역할을 정상화 하려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힘.
- 카딘 의원실의 셀 발렛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대북 접근법이라며, 이는 곧 외교와 경제, 인권 문제가 어떤 군사 옵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핵 문제와 별개로 인권 문제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아울러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힘.

2018. 4. 5.

■미 전문가들 “북한 인권 논의의 핵심은 현장 접근과 조사”(미국의소리)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음.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접근과 조사라고 강조함.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와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꼽음.
- 로버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5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의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로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 관련 법들은 인권 개선을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 역시 북한이 인권 개선에 진전을 이룬다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제 인권감시 관계자들이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러, 북 노동자 대신 인도 노동자 활용 검토(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로 내년 말까지 돌려보내야 하는 북한 노동자 대신 인도, 즉 인디아 노동자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지난 3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제4차 전러 극동지역개발 회의에서 유엔 대북제재로 러시아를 떠나야 하는 북한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으로 인도, 즉 인디아 노동자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블라디슬라브 즈뵤차이니 러시아 연해주이민협력센터 대표는 그동안 연해주 주정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아왔으며 인도 노동자들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재 인도 총영사가 연해주이민협력센터 측에 수차례에 걸쳐 인도 노동자들은 경험과 기술이 있고 연해주의 열악한 환경에도 일할 수 있다며

- 한 번에 4천 명의 인도 노동자들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즈뵤차이니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극동 정부와 인도 정부 간에 논의가 있다고 확인함. 그는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와 팡카지 사란 러시아 주재 인도 대사가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4. 4.

■北신문, 북한인권결의 환영 南에 “용납못할 망동” 비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우리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을 비난하며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이후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내놓은 환영 입장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놀음을 벌린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 할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 그러면서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한 현 정세 국면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모략소동이 북남관계의 살얼음장에 돌을 던지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모처럼 조성된 북남관계 개선과 화해 국면에 맞게 특별히 심사숙고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북한, 국제인권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연합뉴스)

- 주요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는 모두 11개로, 여기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은 가입 1~2년 안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규약이나 선택의정서별로 2년에서 7년 사이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북한은 11개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 가운데 6개를 비준했음. 유엔의 최근 보고서와 최신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그리고, 아동매매 금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등 3개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

-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의 마감시한도 북한은 10년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 금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북한은 초기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016년 12월을 넘겼음.
- 아울러 2016년에 여성차별 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각각 마감시한을 10년과 4년 넘겼으며. 이 밖에도 2016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2019년 1월까지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임.

2018. 4. 5.

■ **북도 여성인력 활용 관심...‘일·가정 양립’ 필요성 거론도(연합뉴스)**

- 북한 사회가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일종의 ‘일·가정 양립’ 방안 등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 하는 논문이 최근 북한 경제학술지에 실림.
- 올해 1월 발간된 계간지 ‘경제연구’ 2018년 제1호에 실린 ‘가정부인 노력(勞力·인적 자원)과 그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노력, 그 가운데서도 가정부인(주부) 노력을 정확히 장악하고 효과 있게 이용하는 것은 나라의 긴장한 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음.
- 논문은 “가정을 가진 여성노력을 적극 동원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면 그들에게 가정을 돌보면서 사회적 부분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을 가지지 않은 여성노력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어 “동, 인민반에 있는 가정부인 노력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들을 사회적 노동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4. 4.

■ **강경화 “정부, 北인권 확고한 기본입장...열악한 인권 개선도모”(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강 장관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우리 정부가 환영한 데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 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유엔무대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고 답변함.
- 이어 강 장관은 “북한인권상황 증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게 북한인권법의 취지”라며 “그런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계속 정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8. 4. 6.

■ 통일부 “北 억류자, 남북관계 진전과정서 해결되도록 노력”(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와 관련, “남북대화 등 계기 시 이러한 인도적 사안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함.
- 백 대변인은 이 문제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밝혔다”면서 “비핵화·평화 정착·남북관계 발전, 포괄적으로 그렇게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3. 31.

■ RFA “탈북민 16명 29일 중국서 체포돼”(자유아시아방송)

- 탈북민 16명이 지난 29일 밤 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제 북한 인권단체 ‘징검다리’를 인용해 31일 보도함.
-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중국에서 탈북민 16명이 29일 밤 9시경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확한 상황과 탈북민들의 위치를 파악 중”이라고 RFA에 전했다.
- 앞서 RFA는 지난 24일에도 중국 선양(瀋陽)에서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된 데 이어, 25일에도 쿤밍(昆明)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탈북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 2명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 밖에 다른 탈북민 10명도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는 덧붙임.

2018. 4. 2.

■ **탈북민 취업 위한 기업체 단기연수 신설·창업지원 다변화(연합뉴스)**

- 통일부는 2일 천해성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7대 분야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기업체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함.
- 공단을 통해 탈북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 뒤 탈북민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기초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에 채용을 지원함. 또한 하나원에 필수과정으로 영농교육을 편성하고 추후 희망할 경우 농림부와 지자체 등이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음. 2019년 하반기 완공 계획으로 하나원에 직업교육관도 들어서게 됨.
- 의사, 한의사, 교원 등 전문직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및 국가시험 등에 지원이 확대됨.
-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며 “탈북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탈북자 단체, 쌀·USB 담긴 페트병 500개 서해안 통해 북한으로 (미국의소리)**

-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들어 있는 페트병 500개가 북한 서해안 도시를 향한 ‘작은 항해’를 시작했다. 주최 측은 극심한 식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외부세계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회장은 쌀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북자인 박 회장은 열악한 북한의 식량 사정 때문에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고 언급함.
- 이날 페트병에 들어갈 USB를 준비한 대북 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쌀이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USB는 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2018. 4. 3.

■“북, 탈북자 가족 강제추방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일 “올해 1월부터 중앙에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탈북한 사람의 남은 가족을 오지로 추방하는 제도가 또 다른 탈북자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가져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지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음.
-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헤산시를 중심으로 사법기관들이 합동으로 탈북자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면서 “조사목적은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탈북자 가족 중에서 추방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 소식통은 또 “탈북자 가족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을 후 헤산시 국경일대에서 갑자기 탈북자가 급증했다”면서 “오지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탈북자 가족들이 추방당할 바엔 차라리 국경을 넘어 살 길을 찾아보려는 생각에서 탈북을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리고 “일단 오지로 추방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결행하게 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강제추방조치를 보류하면서 탈북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며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북자 가족에 대한 추방제도가 해제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음.

2018. 4. 6.

■탈북자 구조단체들 “지난해 11월 강제 복송된 모자 석방돼”(미국의소리)

-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체포돼 네 살짜리 아들과 함께 강제 복송됐던 탈북 여성이 약 한 달 전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돼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석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영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공동대표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강제 복송됐던 탈북자 구 모씨가 아들과 함께 석방됐다고 말함.
- 박 대표는 가족들 보다 먼저 한국으로 탈출한 구 씨의 남편 이태원 씨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고 말함. 구 모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중국 선양에서 아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된 직후 강제 복송돼 회령의 보위부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박지현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힌 탈북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어서 놀랍기까지 하다고 함.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도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구 씨의 남편인 이태원 씨로부터 아내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고 말함.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5. 대북지원

2018. 3. 31.

■유엔, 대북 긴급기금 지원 중단...“제재로 송금 길 막혀”(미국의소리)

- 유엔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 매년 지원해 온 긴급구호기금을 올해는 배정하지 못 했음. 이는 제재로 자금 송금 길이 막혔기 때문임.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 지원되는 것으로 북한은 2007년 1천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엔으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금이 설립된 이래 계속 자금을 지원받아왔으며, 지원 금액은 지난 2017년 1천240만 달러, 2016년 1천 300만 달러, 2015년 830만 달러 등이었음.
- 하지만 대북 송금이 전면 차단돼 유엔이 긴급구호기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북 구호단체들의 지원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